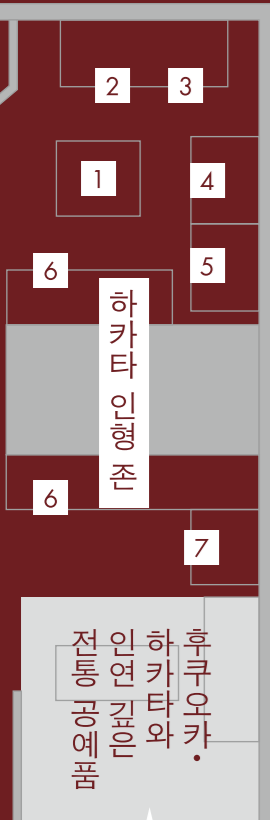


하카타 인형



해설은 오른쪽에

후쿠오카·하카타와 인연 깊은 전통 공예품



하카타 하리코

하카타 하리코는 선명한 색채와 소박한 종이 질감이 특징인 민예품. 점토를 구운 흙 형틀에 풀가사리로 만든 한지 등을 몇 장씩 겹쳐 붙여 햇볕에 말린 후, 이를 반으로 잘라 형틀을 빼내어 마지막에 채색하여 마무리합니다. 옛부터 이어 온 제작법을 고수하여, 모든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품마다 그 맛과 멋이 다릅니다. 하카타 돈타쿠, 도카에비스 등, 축제와 이벤트를 좋아하는 하카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카타 가위

가마쿠라시대, 무역상이 가지고 들어온 당나라 가위가 그 유래. 세계 2차대전 전의 전성기에는 약 20군데나 있었다는 가위 대장간은 현재 1곳만이 남아 있습니다. 바탕쇠를 1000℃까지 가열하여 원형을 만들어 강질과 접합하여 「두드리기」「연마하기」「새기기」「담금질」 등의 100에 가까운 공정 모두가 수작업으로 이뤄집니다. 예리한 칼날과 내구성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니노지」「히시몬」이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



하카타 마게모노

도시락 등의 생활용품을 비롯해 다도 도구로써도 친숙한 하카타 마게모노. 그 기원에는 여러 설이 있지만, 에도시대부터 활발히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후쿠오카시 히가시구 하코자키궁 신사의 신구로써 옛부터 봉납되어 왔습니다.

삼나무와 노송나무를 얇은 판으로 떠서 푹 삶아, 나무 섬유를 부드럽게 하여 구부러서 형태를 만들어 나가며, 나무 판의 가장자리를 빗살로 마무리하여 만들어 집니다. 금속류를 일체 사용하지 않아 가볍고 가지고 다니기 편하며,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카타 고마 (팽이)

약 400년 전, 일본 최초의 팽이로서 탄생. 약 1300년 전에 중국에서부터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전래되었으며, 대나무로 만든 당나라 팽이가 그 기원으로 보입니다. 하카타 고마는 토대에 첩로된 심봉을 넣은 것이 최대의 특징입니다. 균형을 잡기 쉬우며, 빠르게 잘 돌아가기 때문에, 손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고, 팽이를 꺾거나 부채 끝에 올려 돌리는 곡에 팽이가 탄생되었습니다. 현재, 하카타 고마는 공예품일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통예능의 의미도 지닙니다.



멀티 글래스

멀티 글래스는 성질이 서로 다른 색 유리가 여러 층으로 겹쳐져 만들어진 다중적층 유리입니다. 1937년, 파리 엑스포에서 일본의 유리공예로서는 처음으로 그랑프리를 수상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유리는 주된 색깔에 한가지 색을 더 입히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멀티 글래스는 몇 가지 종류의 색 유리를 겹쳐서, 색깔과 형상, 그리고 보는 각도에 따라 빛을 반사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변화를 자아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카타 오키아게

「하카타 오키아게」는 두터운 종이를 꽃과 인물 등 다양한 형태로 잘라내어 그 위에 솜을 덧대고 화려한 금실과 비단으로 겹쳐 붙인 오시에자이쿠를 말합니다. 그 역사는 매우 깊으며, 원래는 에도시대에 궁중에서 생겨나, 점차 서민에게 퍼진 것이라 합니다. 옛날에는 여성이 배워야 할 교양이기도 있던 하카타 오키아게는 점차 생산자가 줄어들어, 현재에는 2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카타 화살

길게는 1년 가까이 제작 기간이 걸리는 화살의 제조법은 대나무를 잘라내어 「긴조」「짚아내기」「연마하기」등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 집니다. 자연에서 얻은 대나무를, 마다·무게·굵기까지 맞춰가는 공정은 특히나 어렵고 고난도 기술을 요합니다. 최고급품 화살에는 지금도 독수리와 매의 깃털이 사용됩니다. 그 형태 또한 중후하고 기품이 넘쳐 변함없는 인기를 구가하는 하카타 화살. 옛날에는 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가내안전,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액막이로써의 의미도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장식용 화살 등으로 친숙해 있습니다.

하카타 전통 공예관

HAKATA TRADITIONAL CRAFT AND DESIGN MUSEUM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가미카와바타마치6-1 ☎092-409-5450

<http://hakata-dentou-kougeikan.jp>

전통의 “새로움”이 여기에 있다
하카타 전통 공예관
 HAKATA TRADITIONAL CRAFT AND DESIGN MUSEUM
[상설 전시 지도]



상설 전시실

2F

후쿠오카의 대표적인 전통

공예품으로, 옛부터 장인들에 의해

기술이 계승되어 왔던 「하카타 인형」.

「하카타 전통 공예관」에서는

후쿠오카·하카타와 인연 깊은 뛰어난

전통 공예품을 전시·소개함으로써,

기나긴 역사 속에서 장인들이 쌓아온

기술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하카타 어린이모퉁이



1 하카타 오리 제작 공정

하카타 오리의 공정은 풍부한 감성이 요구되는 「의장(디자인)」부터 숙련된 장인 기술이 필요한 「염색」으로 이어집니다. 염색한 실을 필요한 울 수와 길이에 맞추어, 베를에 실을 짜 나갑니다. 7천 울이나 되는 섬세한 명주실을 한 울 한 울 짜내는 작업은 대단히 힘든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작」을 거쳐져 되면 완성됩니다. 완성된 직물은 검품 과정을 거쳐야만 하카타 오리로서 인정받습니다.



2 하카타 오리 현상문에 관하여

「하카타 현상 무늬」는 불구인 독고와 하나자라(꽃결시)를 도안화한 문양과, 붉은 선(부모)과 얇은 선(자식)을 결합한 무늬로 구성되며, 액막이·가네번성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대 염색기법에 의한 다섯가지 색으로 표현되며 「오색 현상」은 보라색이 품격, 파란색이 평화, 붉은 색이 부와 행복,감성이 신용, 노란 색이 황제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또한 유교의 「오상」(인,덕,예,지,신)에서 유래된 것이라 일컬어지며, 중국문화를 일본에 맞춰 한층 더 발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3 젊은 작가의 하카타 오리

하카타 오리 공업조합은 2006년에 「하카타 오리 디벨롭먼트 켈리지」를 개교하여, 하카타 오리의 기능 전승과 세계에서 활약할 인재 육성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디벨롭먼트 켈리지 졸업생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품은 수작업으로 제작되었으며, 세계에 자랑할 만한 하카타 오리 업계를 이끌어 줄 젊은 인재가 만든 혼신의 역작이기도 합니다.



4 현대 작품

수천 울의 실을 몇 번에 걸쳐 짜내야만 탄생되는 하카타 오리. 견고하고 튼튼한 옷감은 느슨해지지 않고, 풀기 쉬운 기능성을 지니어, 허리띠(오비)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카타 오리의 장점을 일상 생활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현대 생활과 스타일에 맞춘 상품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실의 두께를 바꾸는 등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섬세한 무늬와 천의 감촉을 표현하면서도, 하카타 오리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항상 모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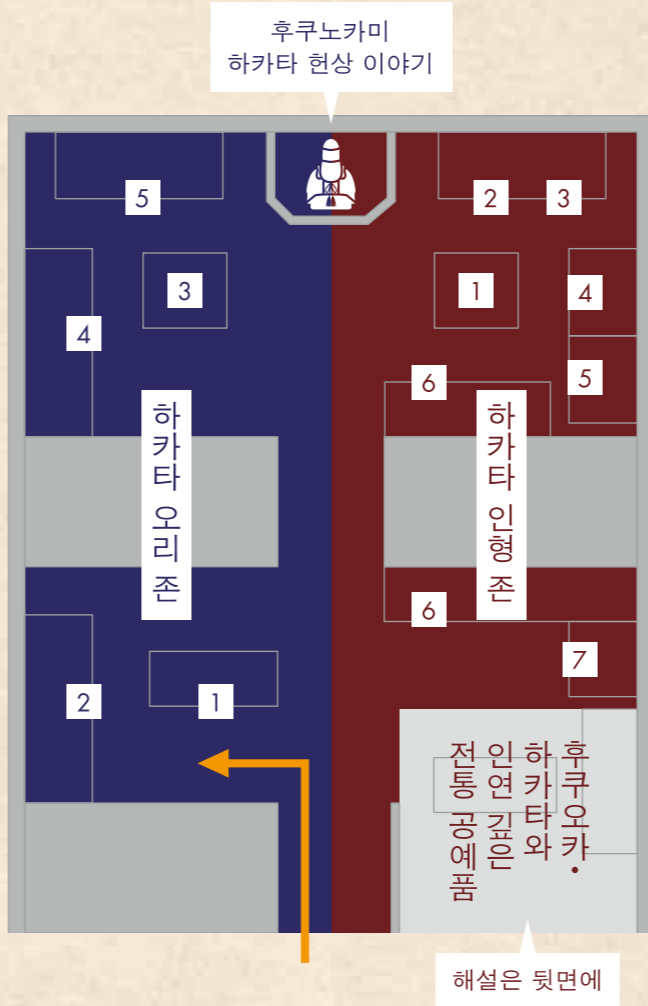


5 하카타오리 품평회 입상작품

하카타 오리 업계 최대의 행사인 「하카타 오리 구평회」가 매년11월에 하카타구의 쇼텐젠지 절에서 개최됩니다. 110회를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 품평회에서는 전국의 전통직물 산지와 문화인 등이 엄정한 심사를 합니다. 또한 매년 4월 도쿄에서 개최되는 「신작 하카타 오리전」에서는 내각 총리상을 비롯한 권위있는 각종 상이 결정됩니다. 여기에서는 위의 두 품평회에서 수상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하카타 오리 모자

송나라에서 전달되어 하카타에서 승화된 전통적 공예품



해설은 뒷면에

하카타 인형

미인인형·어린이인형 · 무사인형 세계가 인정 한 손 기술



1 에도시대 ~기적의 여래좌상~

전시품인 약사여래좌상은 하카타구 대나무 숲 속의 소당에 안치되어 있던 것으로, 2001년에 주민의 의뢰로 조사가 이루어져, 구로다 가문을 전담하던 도예가인 4대째 마사키소시치의 작품인 것으로 판명. 그 후, 지진으로 인해 소당이 무너졌지만, 본 불상은 하카타 인형 조합에 기증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적으로 재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 메이지시대 초기·중기

메이지 초기, 인형의 형틀은 흙이었으며, 앞뒤 2장의 형틀만으로 바탕이 만들어졌으나, 메이지 말기부터 오늘날과 같은 석고로 형을 뜨는 방법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카타 인형 역사상 획기적인 일입니다. 사람을 본뜬 인형은 메이지시대 대유행하여 많이 만들어졌지만,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아, 폐기된 것이 많았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인형은 머리부터 몸통까지 일체화 되어 있어, 조형적으로 보아도 회귀하고 뛰어난 작품입니다.



3 쇼와시대 전후

전쟁중에 전통 산업의 제조는 엄격히 제한받았습니다. 하카타 인형을 포함한 일정한 공예품은 기술보존을 목적으로 일부 제조·판매가 허가되었지만, 1945년 하카타 인형도 제조·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판매 금지령이 풀린 후 1951년~1957년 사이, 하카타 인형의 해외 수출액이 국내 판매액보다 많았던 시기도 있었으나, 이 시기는 옛 일본의 민속적인 생활이 주요 모티브가 되는 인형이 많이 제작되어, 미군이 조직적으로 사들인 것입니다.



4 메이지시대 말기

이 시기에는, 서양의 사실 표현 기법이 인형 제작에도 반영되어 다양한 도전이 시도되었습니다. 작가들은 석공의 기법, 인체의 골격 구조, 착색, 배색, 물감의 용해법에 이르기까지 근대적인 미술표현 기법을 터득해, 다이쇼 초기에는 실제로 인체 해부를 동반하는 실습에도 참가하였습니다. 하카타 인형의 제작은 이 시기에 비약적으로 근대화를 이루어, 완구의 장르에서 미술품으로 승화되었습니다.



5 쇼와시대 ~고지마요이치- 가부키 작품~

하카타 인형 장인의 1인자인 고지마요이치는 14살때 하카타 인형 장인이 되고자, 문하생이 되었습니다. 가부키를 좋아하던 요이치는 가부키 인형에 독자적인 작품을 개화. <가부키 인형>은 요이치 인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능수능란한 「명인 요이치」라 칭송되기도 했지만, 제작 기술의 향상을 위해서라면 「요이치 비용」이라 할 만큼 아낌없이 돈을 들였다고 합니다.



6 쇼와시대 ~전통의 기술을 이어가는 작품~

하카타 인형의 기술 향상은 인형 장인의 개성을 살린 작품으로 승화되어, 「예술 인형」이라고까지 칭송받게 됩니다. 2차대전 후에는 다양한 장르가 탄생되어, 보다 사실적인 작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시품은 옛부터 이어져 온 전통 기술을 지키면서도 독자적인 작품으로 하카타 인형을 만들어 온 장인들의 작품입니다. 하카타 인형은 탄생한 지 400년 정도 되었습니다. 색채가 부족하던 흙인형이 시대의 풍파를 겪으며 크게 변화를 이룬 집대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7 현대 ~신작 하카타 인형전 출전작품~

「신작 하카타 인형전」은 1949년부터 계속된 하카타 인형 업계에서 가장 명예로운 전람회로 매년 4월 도쿄에서 개최됩니다. 백화점 바이어와 유식자 등이 엄정한 심사를 하여, 내각 총리상을 비롯한 각종 상을 걸칩니다. 이 전람회에서는 하카타 인형의 매력, 도심부에서 전국으로 홍보되며, 해마다 도쿄에서 전람회가 열린 뒤, 후쿠오카에서도 귀경 전람회가 열립니다.



하카타 오리 직물과 하카타 인형의 콜라보레이션 작품 「후쿠노카미」와 「하카타 현상 이야기」

후쿠노카미 하카타 인형 장인·나카무라신료씨가 만든 약70cm의 하카타 인형 오쿠라류교겐 「후쿠노카미」는, 매년 참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크게 감동받고 기뻐하여, 이를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며 복을 나눠준 후 신전으로 돌아간다는 신입니다. 방문자에게 복이 찾아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카타 현상 이야기 하카타 오리 직물의 역사를 3장의 직물로 표현. 「현해탄」의 파란색에 파도를 표현하여, 중국에서 전해져 온 직물과 불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